

# 오라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 편 2020 년 3 월 15 일

<시편 95 편 개역한글>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3. 대저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8. 이르시기를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퍽하게 말지어다
9. 그 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10. 내가 사십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 들어가기.

지난 주일에는 시편 121 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 편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본당에서 소리를 내어 시편 95 편을 읽어 보았습니다. 서너번 읽다보니, 시편 기자의 우렁차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활짝 얼굴을 펴고 초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음성에, 저도 덩달아, 기쁨과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솟아 나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초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영광스럽고 고귀한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혹시 그런 초대를 받아본 기억이 있나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 지 모르겠지만, 릿찌월드에서 목회하던 중에,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우,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제 나이 40 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뻐뚱하고, 자신이 참 잘 난 사람이라는 교만스러운 생각도 했습니다. 가 보았더니, 미 전국에서 300 명 가량의 아시안 아메리칸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더라고요. 대통령은 안 나오고, 부통령, 고어 부통령이 나와서 인사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 월이 미국 정부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업적과 기여도를 기억하는 달로 선포하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포한 내용이 담긴 종이 선포문을 보물단지처럼 가슴에 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 평생 잊지 못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5 편에는 한 나라 대통령의 초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으신 분 앞으로 나와 만나라는 초대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어떤 신이나 지상의 어떤 높은 권력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지체 높으신 분의 초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을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95:3)”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신 중의 신, 유일하신 신, 그리고 왕 중의 왕께 나아 오라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대장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니까? 맞습니다. “오라 COME!”입니다.

95 편 1-5 절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6 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95:6)

“오라,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오라,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어디로 나아가자고 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초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엄청난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 편 말씀에 보며는, 우리가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1

먼저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그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 절에,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5 절에는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참 좋구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 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95:5-6)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져도 설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어떠할까요? 예배는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설레이는 자리입니다.

## 2

또 두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주님이심을 알려줍니다. (95:1) “오라,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그 분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40 편 2 절에, 시편 기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40:2)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체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사,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 벗겨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차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입니까? 바로 그 경험을 하는 곳이,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감사 잔치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오래 전에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교인들이 예배 하는 비디오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연발 할렐루야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봉헌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줄을 지어서, 춤을 추면서, 봉헌하는 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잔치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창조자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한 때 탕자였으니, 이제 집에 돌아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구원 주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 의 장으로 나아가니 나아가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 3

6 절 7 절 말씀 보며는, 세번째로,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6 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후에, 하나님이 두 손 끼고 앉으셔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어,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곁에 계시며,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기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 편.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찬송했습니다.

‘너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저 백합보다도 나에게 아주 소중한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 6:32)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3)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 분을 만나는 예배로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일 오후 1 시에만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현존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할 때, 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맞아요, 저는 물 속에서 찬양하고, 즐기며 부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언제 예배 하십니까? 매 주일 뿐 만 아니라, 매일 매일, 예배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는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4

그런데, 시편 95 편의 첫 부분의 예배로의 초대인 글이라면, 초대의 글이 끝난 후에,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가 끝난 후, 추신이라는 것 있지요? 추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신은 내용은 8 절 이후에 있습니다.

8 절에 보니까,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 장 1 절로 7 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 곳 이름을 므리바 또는 맛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리바와 맛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나아가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 생활이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광야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40 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 인생 광야 여정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싶지 않은 광야 여정입니다. 아주 힘든 여정입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려움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광야 여정에 어려움이 닥쳐 올 지 모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끝날 때까지 많은 사건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비드 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운동경기가 중단되고, 음악회 강연회 등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여행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불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울 때마다,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염려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염려의 파도에 허우적 거리다 보면, 절망의 깊은 계곡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의심이 밀려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나 의심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우리에게, 시편 95 편 8 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강박하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지켜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창조 주 하나님, 구원 주 하나님, 목자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여정 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 장 7 절에서, 권고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 장 6 절 7 절에서, 권고하기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 5

믿음이 해답입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눈동자 같이 아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네가 태어 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일평생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너를 품을 것이요, 너를 업을 것이라. 너는 나에게 보배요, 존귀한 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행복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11 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처럼, 믿음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가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았노라 두 팔 펴고 외치며, 감사 기도 올리고 기쁨의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추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2020 년 3 월 15 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능력,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